긴장격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

새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군부의 반공화국대결본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그들은 여러 기회에 동족을 걸고들며 《합의서위반》과 《도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소리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이 앞에서는 《대화》와 《신뢰》에 대해 떠들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계속 매여달림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란폭하게 유린해왔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지난해에만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외세와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련합공중탐색구조훈련과 련합편대군 종합훈련,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신한 《동맹 19-1》과 《련합지휘소훈련》 등 크고작은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감행하였다.

또한 《훈련은 발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련합훈련을 과도하게 홍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여론의 눈길을 피해가며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은폐된 형태의 합동군사연습들도 부단히 벌려놓았다.

지난해에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외세와 야합하여 벌린 련합훈련이 100차례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남조선군부는 《2019년 국방부업무계획》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비롯한 무력증강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체계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잠수함성능개량과 경항공모함건조, 각종 구축함과 전투기재를 적극 개발하는 등 북침전쟁준비에 광란적으로 매달렸다.

남조선군부가 《현존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주장밑에 지난해 국방예산을 력대 최대였던 2018년보다 8.2% 늘인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세력은 《도발》과 《위반》을 운운하며 제편에서 동족을 걸고들다 못해 《군사대비태세》와 《단호하고 주저없는 대응》을 부르짖으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군사적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리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망동은 내외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새해벽두부터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대결소동들은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예측할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높아가는 파병반대의 목소리

남조선에서 호르무즈해협파병을 반대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외교부 장관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파병여부와 관련한 《국회》질문에서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사실,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청해》부대파견목적에 《국민안전보호》도 포함되여있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현 당국이 《상선보호를 명분으로 이미 소말리아의 아덴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파병움직임을 보이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를 첨예한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는 호르무즈해협에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내몰려는 당국의 행위는 남조선 각계층의 강한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참여련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동맹국이라고 파병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다.》, 《군사행동에 동참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호르무즈해협파병을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반면에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만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사대매국적정체를 여실히 드러내놓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은 호르무즈해협파병여부가 또 하나의 정치적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유독 《자한당》과 같은 보수세력만이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파병을 주장하고있다, 만일 현 당국이 호르무즈해협파병을 결정할 경우 각계의 더 큰 항의와 규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하고있다.

김현일

단평

유치한 발상

《자한당》은 왜 불에 덴 소처럼 날뛰는가

요즘 남조선에서 《자한당》의 위성정당창당놀음을 두고 비난과 조소가 그칠새 없다.

《민의를 외곡하려는 꼼수정치를 중단하라.》,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부끄러움을 알라.》, 《탈법정당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존재리유가 없다.》…

이쯤됐으면 늦게나마 수치를 느끼고 잠자코 있는것이 상책일것이다.

하지만 올데갈데 없는 《자한당》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불복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니 생떼를 부리는가 하면 《비례정당이름후보는 아직도 많다.》, 《앞뒤 혹은 중간에다가 무엇을 끼워넣을지는 무궁무진하다.》고 넉살을 떨며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

구린 입에서 바른소리가 나올리 만무하지만 《비례자유한국당》에 《사형선고》 내린 이 마당에 와서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위성정당을 내오겠다고 악을 써대고있으니 참으로 낯뜨겁기 그지없다.

위성정당이라는것이 남조선 《국회》에서 《준련동형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앙심을 품은 《자한당》패들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석을 더 따낼 목적으로 고안해낸것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저들스스로가 지역구후보에 대한 투표는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후보에게 하고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는 《비례자유한국당》에 하도록 지지층을 유도한 후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을 합쳐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자는데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남조선 각계층이 《준련동형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위성정당을 내오려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개혁정당》, 《기득권정당》이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처럼 그 발상자체가 유치하고 불순할뿐아니라 민의에 심히 저촉되는 위성정당을 기를 쓰고 내오겠다고 고집하는 《자한당》이야말로 천하의 둘도 없는 불한당집단, 한시바삐 력사의 뒤길로 사라져야 할 적폐의 무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자한당》에 침을 밸은지 오래다.

《자한당》이 위성정당을 내오든말든 차례질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김영범

최근 남조선에서 검찰개편인사를 두고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큰 일이나 난것처럼 복닥소동을 피워대고있다고 한다.

검찰인사개편이 발표되자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긴급의원총회와 규탄대회 같은것을 련일 벌려놓고 《좌파독재의 인사폭거》, 《검찰대학살》로 걸고들며 법무부 장관을 직권람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마치도 제 살점이 떨어져나간것처럼 아부재기를 치고있다. 이것도 모자라 《자한당》소속 의원 수십여명이 청와대로 몰려가 《검찰들 주눅들지 말라. 한국당이 있다.》, 《총선에서 무도한 좌파독재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적폐검찰을 비호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이에 보수언론들도 합세 부정부패만을 일삼던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로서는 저들의 손발이였고 방패막이였던 적폐검찰이 무너지고있는데 대해 제일 큰 공포와 불안을 느낄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지금 이자들은 어떻게 하나 적폐검찰세력이 몰락되는것을 막아 저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과거의 파쑈암흑시대를 되살려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사회적진보와 민주개혁을 바라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악랄한 모독이다.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적폐검찰에 대한 민심의 심판은 내려졌고 그것은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였다. 자기 시대를 다 산 폐물들이 민심의 준엄한 징벌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질할수록 파멸의 진펄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검찰개혁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전호에서 계속)

니전투구당

추악한 오명으로 얼룩진 《자한당》의 1년행적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자한당》내에서는 지난 한해 어느 하루도 계파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특히 지난해 2월에 진행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의 치마폭에 엿가락처럼 녹아붙어 온갖 만행을 저질러온 황교안이 당대표자리를 노리고 《자한당》에 코를 들이밀면서부터 당내 계파갈등의 폭풍은 더욱 세차게 몰아쳤다.

개는 싸움이 인사라는 말을 립증이나 하듯 황교안이 《자한당》에 입당하자 친박계는 소리치며 환영한 반면에 비박계는 《계파분렬의 서곡이 될수 있다.》, 《황교안이 당대표로 되면 당은 망한다.》고 하면서 첫날부터 아웅다웅하였다.

갈수록 험산이라고 황교안이 당대표자리를 차지한 이후부터 《자한당》이 《혁신》과 《통합》을 통한 《새 정치》로 중도층을 끌어당기겠다고 입에 꿀발린 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인재영입》과 《보수대통합》을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친박근혜파와 비박근혜파사이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였다.

정치풋내기인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안에 신선한 피를 수혈하겠다.》고 하면서 《인재영입대상》발표놀음을 벌렸지만 여기에 이름이 오른자들이 하나같이 박근혜탄핵을 반대한 극우분자, 적폐청산에 걸려들었던 부정부패분자들인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비박근혜파로부터 《감동없는 인재영입》, 《인재영입실패》라는 비평을 받았다.

여기에다 기성세력들이 다음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경상도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저저마다 나서자 신진의원들이 《당혁신에 도전하는 행동》, 《낡은 세력은 뒤로 물러나라.》고 강하게 반발해나섰는가 하면 《보수대통합》문제를 둘러싸고도 황교안파, 친박근혜파, 김무성파, 홍준표파 등 각 계파들이 저들의 리해관계만을 앞세우며 옥신각신함으로써 당이 말그대로 제개비네집안으로 되고말았다.

한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동상이몽하면서 권력암투를 벌리다가 결국 라경원이 황교안의 권모술수에 의해 밀려났다.

남조선의 정치전문가들은 《자한당》내에서 《쇄신》파 《중진용퇴》요구가 비발치는 가운데 단식으로 주도권을 잡은 황교안이 친박계를 돌격대로 삼아 올해 4월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대폭 《물갈이》를 시도하고있으나 비황계인물이 원내대표로 선출됨으로써 《자한당》내의 물고뜯고 피터지는 싸움이 더욱 치렬해질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우두머리들은 우두머리들대로 당권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결투를 벌리고 졸개들은 《국회》의원자리나 자파세력확장을 위해 매일같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이발을 드러내놓는 개무리-《자한당》은 민심이 평한 그대로 《니전투구》당이다.

골목깡패당

《자한당》은 비정상적이고 도를 넘는 막말, 깡패적인 기질을 타고난 골목깡패들의 무리이다.

당대표부터가 《유신》독재자의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떠들며 민주세력들을 감옥에 처넣는데 앞장선 악명높은 《공안》검사출신이다보니 수하졸개들도 모두 하는짓이란 막말과 독설, 깡패질뿐이다.

입이 걸기가 사복개천같은 《자한당》것들은 지난해 4월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향해 《자식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인젠 징글징글하다.》는 막말을 쏟아내여 민심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막말과 독설을 쏟아내는데서는 입심이 센 사내들에 조금도 짝지지 않을 포달스러운 전 원내대표 라경원은 지난해 5월 제4차 《장외집회》에서 현 당국자를 비난하면서 녀성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탈창》이라는 거칠기 짝이 없고 색정기가 번지르르한 발언을 하여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자한당》의 깡패기질은 결코 막말로 그치지 않았다.

《자한당》것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 《공직선거법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회의실을 점거, 봉쇄하고 의원들을 감금하는 폭력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들은 이리저리 떼지어 몰켜다니며 《국회》복도에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드러누워 란동을 부리고 오물을 버려놓았는가 하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입에서 더러운 《구정물》을 마구 쏟아내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문화도덕수준도 갖추지 못한 패륜아, 정신적기형아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정치인이라는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하여 민심의 뭇매를 맞은 《자한당》것들은 현 당국자가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에는 《강남좌파》, 《매장시켜야 할 대상 1호》로 매도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추진》을 떠들어대며 《태극기모독단》폭력배들이 벌려놓은 반 《정부》집회에 합류하여 내란을 선동하였다.

한해가 저물어가던 지난해 12월에는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을 선동하여 《국회》앞에서 《〈공수처설치법〉, 〈선거법〉날치기저지규탄대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국회청사점거》에로 내몰면서 《국회》의원들을 폭행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침을 밸고 욕질과 성추행 등의 폭력행위를 감행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정치폭도》, 《정치깡패무리》라는 비난규탄을 받았다.

민생법안들의 처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로지 저들의 당리당략, 재집권야망실현에만 눈이 멀어 돌아가는 《자한당》이야말로 고상한 정치인들이 모인 정당이 아닌 《깡패도당》임이 분명하다.

민생외면당

지금 남조선에서는 리명박근혜시기 엉망으로 망쳐놓은 경제때문에 민생이 점점 더 도탄에 빠져들고있다.

부동산가격과 물가상승 등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대란이 일고있지만 《자한당》것들은 경제파탄, 민생파탄을 끝없이 지속시켜야 민심이 당국과 여당에 등을 돌려대여 빼앗긴 권력을 되찾는데 유리하다는 타산만 앞세우면서 지난 한해동안 민생관련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악랄하게 가로막아 경제위기를 더욱더 격화시켰다.

《자한당》것들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련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개혁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국회》를 란장판으로 만들고 《임대차보호법》과 《류통산업발전법》, 《유치원3법》, 《민식이법》(도로교통법개정안)을 비롯한 민생관련법안들을 인질로 삼아 신속처리안건을 폐기하라고 여당을 공격해댔다.

지난해 5월 남조선강원도의 산불피해현장에서 《산불화재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주제로 최고위원회의를 벌려놓고는 오히려 산불피해대책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회의실에서 쫓아낸것이 바로 《민생》을 위한다는 《자한당》망나니들이다. 지난해 6월에도 《자한당》것들은 당국과 여당이 당면한 경제악화를 막는데 필요한 6조 7 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현금을 주는 도덕적해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떠들면서 온갖 비렬한 수법을 다 동원하여 《국회》통과를 가로막아나섬으로써 4월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무려 99일이 지난 8월초에야 간신히 《국회》에서 통과되여 경제위기대처에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관련법안들을 외면하고 걸핏하면 《국회》를 뛰쳐나가 《장외집회》와 맞불집회, 출퇴근시위와 이어달리기식 삭발, 1인단식 등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해괴망측한 광대극을 연출하는것도 모자라 초강력태풍이 민생을 덮치는 다급한 정황속에서도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내여 우파 《초불시위》까지 벌려댄 《자한당》의 광태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역적무리들의 정체를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지난해 남조선 《국회》에 《청년법》을 비롯한 200여개의 민생관련법안이 상정되였으나 《자한당》의 방해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불과 16개밖에 안된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자한당》이야말로 민심을 외면하고 오직 권력쟁탈과 치부에만 환장해있는 정치협잡군무리, 정치판에서 반드시 도려내버려야 할 악성종양임을 똑똑히 알수 있다.

친미사대당

친미사대는 《자한당》의 천부적기질이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친미로 생겨나고 친미로 독재시대를 연 《자한당》은 민심의 버림을 받고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오늘까지도 친미사대에 환장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파기되기 바쁘게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자한당》지도부것들은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고있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미국과의 《동맹》에 균렬을 내는 《파괴행위》, 미국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협정파기》는 《안보자해소동》이라고 악청을 돋구었다.

미군기지를 조기반환받기 위한 현 당국의 결정을 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결정이후 미국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항의메쎄지이다.》, 《지지률결집을 위해 〈자주국방〉안보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있다.》고 공격해나섰다.

친미사대에 명줄을 건 반역의 무리들은 보수세력들과 서울에서 《한미보수련합대회》라는 광대극을 벌려놓고 현 당국의 《친북정책으로 〈한미동맹〉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다.》, 《〈한국〉은 공개적으로 자체핵무장을 하여 북과 1대 1로 핵폐기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한〉미일이 새로운 〈안보협약〉을 강화하여 북을 견제해야 한다.》고 요란스레 떠들어댔다.

미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을 2배로 증액할것을 강박하자 《자한당》것들은 인민들의 분노에는 아랑곳없이 《〈방위비분담금〉은 돈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문제》, 《〈한〉미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목에 피대를 돋구면서 친미사대에 명줄을 건 구접스러운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이런 친미사대매국노들이 남조선에 욱실거리기에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비롯한 여러 협상들에서 이미전에 체결한 《방위비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US$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짜내려고 현 당국을 더욱 압박해대고있는것이다.

온 겨레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고 있는 오늘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은 곧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침략비》, 《전쟁비》의 증액으로서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는 초미의 문제이다.

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이 현 당국의 무모한 벼랑끝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졌다고 앙탈을 부리면서 《본질은 〈한미동맹〉의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이라는 얼빠진 궤변으로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겨바치고있는 《자한당》것들이야말로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할 사대매국노무리들이다.

토착왜구당

일찌기 친일과 독재로 연명하며 분렬의 찌꺼기로 살쪄온 적폐세력이 다름아닌 《자한당》이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 령토강탈야망과 력사외곡책동에 매달리는 일본에 재침의 멍석을 깔아주고 아베정부의 수석대변인노릇을 하는 《자한당》의 친일매국적행위는 일본을 더욱 오만방자해지도록 부추겨대고있다.

지난해 6월 한 친일파를 찾아가 《6.25전쟁영웅》으로 추켜세워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자한당》것들은 《국회》에서 뻐젓이 《반민족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을 분렬시켰다는 친일비호적인 언사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일본 아베정부의 정치보복과 경제침략을 《우리 일본의 일》로 찬미하고 각지에서 전개되는 일본제품불매운동, 일본려행중지운동, 아베규탄투쟁을 《철부지들의 감성팔이》로 모독하는 쓸개빠진 언동도 서슴지 않았고 일본정부를 《우리 정부》라고 부르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것은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는 당치않은 친일망언들을 마구 토해냈다. 황교안, 라경원, 홍준표, 김무성, 김성태를 비롯한 역적당것들은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국과 여당이 일제시대도 아닌데 반일죽창투쟁을 선동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지 친북, 친공을 하면 안된다고 얼토당토않은 망발까지 해대며 역스럽게 놀아댔다.

남조선 각계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결정을 두고 《8.15후 최초의 자주적인 외교결정》, 《아베의 경제침략에 맞선 정당한 행사》, 《초불시민이 이룩한 승리》로 적극 환영하고있을 때에도 《자한당》패거리들만은 《우려스러운 결정》, 《협정파기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악을 써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그 무슨 《민평론》이라는데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결정을 철회하고 《한미일안보협력》을 강화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일본의 막무가내 수출규제조치를 두고 오히려 현 《정권》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것을 막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림하겠다.》며 《갑질단식》, 《황제단식》이라는 역겨운 희비극을 연출하여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친일정당》, 《친일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선사받은것도 《자한당》무리들이다.

개주둥이에서 상아가 나올리 만무하지만 민족의 넋마저 깡그리 상실한 수작질로 천년숙적을 비호하는 《자한당》은 권력야욕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는 현대판 《을사오적》의 무리, 《토착왜구당》이다.

* *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에 걸리지 않아도 급사한다는 말이 있다.

지리멸렬의 위기에서 벗어나 보수부활의 개꿈을 실현해보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며 최후발악한 《자한당》이 남조선인민들로부터 하사받은 추악하고 더러운 《오명》들은 파산과 몰락을 예고하는 민심의 엄정한 선고장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과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드세찬 격류에 역행하여 지난 한해동안 남조선땅을 벌등지 쑤셔놓은듯 소란케 하면서 권력쟁탈에만 몰두해온 반역의 무리-《자한당》은 반드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말것이다.

주체109(2020)년 1월 6일
《우리민족끼리》편집국